

---

# 2024년 협동조합 정책연구 및 선진사례 조사(일본) 결과보고서

저출생 고령화 대응

---

2024.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I

## 개요

### 1. 출장 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초과)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에 대한 시설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또한 지난 '24년 2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통과 후 '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 관련 통합돌봄지원 실행을 위한 중앙 및 지역단위 거버넌스 등 운영 체계에 대한 준비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크고 더딘 상황
- 일본은 '0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4년 의료개호종합보장추진법 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 지역기반 포괄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관련하여 농협, 생협, 노동자협동조합 등의 역할과 협력 사례 다수 존재

#### [참고] 한국 및 일본 고령화율 추이 비교

우리나라	고령화율	일본
2000년	7%(고령화사회)	1970년
2018년	14%(고령사회)	1994년
2025년	20%(초고령화사회)	2005년
2036년	30%	2027년
2043년	36%	2044년
2050년	40%	

\*자료: 통계청, 보험연구원 등

□ 목적 및 기대효과

- 정부에서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쟁력 및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원 중이며
  - 특히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 등을 파악해 제시하고자 노력중
- 이번 정책 연수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관련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의 협동조합 사례 등을 확인하여
  - 국내 협동조합 적용 등을 위한 시사점, 정책 제안 사항 등 도출 및 적용 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 관련 내용은 '25년 진행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포함, 관련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

2. 출장 인원 및 경비

□ 인원 : 총 3인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협동조합본부	실장	안수진	협동조합 지원 총괄
서남권총괄본부	대리	김은송	센터 운영, 협동조합 지원 등
수도권총괄본부	대리	이건	센터 운영, 협동조합 지원 등

□ 경비 : 총 5,634,200원

(단위: 원, '24.10.17. 고시환율 기준)

성 명	금액 계	항 운 공 임	체 제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자료 수집비 등)
			일 비	식 비	숙박비			
안수진	2,119,400	400,000	191,200	584,500	913,700	30,000		
김은송	1,757,400	400,000	163,800	442,500	721,100	30,000		
이 건	1,757,400	400,000	163,800	442,500	721,100	30,000		
계	5,634,200	1,200,000	518,800	1,469,500	2,355,900	90,000		

※ 준비금(여행자보험)

### 3. 일정 및 프로그램

#### □ 사전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사전조사 및 개별 학습	~'23.11.21	- 방문 기관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개별 학습, 질문지 정리 등(참고 자료 공유)
공동학습 및 오리엔테이션	'23.11.21	- 정책연수 OT 및 개인별 학습 내용 공유, 질문사항 공유 및 토론 등
추가 조사 및 사전 리뷰	~'24.11.24 ~ 28	- 공동 학습 결과 보완 필요 내용 추가 조사 - 현장 방문/인터뷰 일정 전 질문지 등 리뷰

#### □ 본 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 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11.26. (화)	인천 (9:55)	나리타 (12:20)	-	출국 / 일본 도착	-
	나리타	시부야 (16:00)	도큐 플라자 시부야	현장 견학	-
11.27. (수)	신주쿠	요코 하마 (10:00)	요토하마 복지클럽생활 협동조합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 시설 탐방 및 담당자 면담	아리가케이코(이 사장) 외 1인
	요코 하마	도시 마구 (13:00)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 합회 (WORKERS' COOP)	노동자협동조합 사업 소개 및 현장 견학	타지 마야스토시 (전무이사)외 2인
		히가시이 케부쿠로 (15:00)	도시마구립 히가시이케부쿠로 프레일대책센터	프레일대책센터 담당자 면담 및 현장 견학	타지 마야스토시 (전무이사)외 2인
11.28. (목)	신주쿠 (9:30)	신주쿠 (10:00)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 (JCA)	JCA 사업 소개 및 담당자 면담	히가마사히로 (대표이사) 외 2인
	신주쿠	시부야 (15:00)	일본생활협동조합 연합회(JCCU),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 조합연합회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사업 소개 및 담당자 면담	요시노리 아사다 (부장) 외 2인
11.29. (금)	나리타 (14:00)	인천 (16:40)	-	입국/한국 도착	-

II

추진 내용

□ 대상 기관 방문 개요

순번	방문 기관	구분	주요 내용
1	도큐프라자 (현지 섭외)	기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년 12월 도쿄 젊은이들의 쇼핑 중심이자 최대 변화가 시부야 역에 바로 인접하여 들어선 시니어를 위한 복합쇼핑타운</li> </ul>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 한복판 시니어 전문 복합상점의 기획, 구성, 상점 내 판매 중인 제품 및 서비스 상담 현황 파악 등</li> </ul>
2	요코하마 복지클럽생활 협동조합	기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9년 일본 첫 복지전문생협을 시작, 가나가와현 23개 행정구역 내 1만 7천 명 조합원 확보</li> <li>공동구매 외 육아 및 탁아지원, 고령자/장애인 돌봄, 가사/이동지원, 가드닝, 의류관리 등 다양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중</li> </ul>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코하마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의 연혁 및 운영 현황</li> <li>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현황,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방식, 성공 요인과 애로사항 조사, 노인주거돌봄시설 등 탐방</li> </ul>
3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WORKERS' COOP)	기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노동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로 코로나 위기 시 열악한 의료, 복지 분야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공제 상품 운영</li> <li>지역지지 활동, 건강 만들기 활동, 어린이 성장프로젝트 지원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 진행 중</li> </ul>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협동조합 연합회로서의 주요 기능 및 고유 역할</li> <li>연합회와 정부, 2차 연합조직과의 관계 및 지속 가능 전략</li> <li>연합회 내 우수 홍보 사례 및 유사 조합 관련 주요 통계 수집</li> </ul>
4	도시마구립 히가시이케부쿠로 프레일대책센터 (현지 섭외)	기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경 내 독거 인구 밀집 지역이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도시마구에서 위탁,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복지 센터</li> </ul>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기초자치구 내 고령자 복지센터 협동조합 위탁 운영 현황, 서비스 연계 및 지역포괄케어 관련 참여 현황 등</li> </ul>
5	일본협동조합 연계기구 (JCA)	기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내 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 총연합회(약 650여 개 조직 참여)</li> <li>일본 협동조합 간 협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li> <li>일본 협동조합 관련 주요 통계(2020년) 발표</li> </ul>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 협동조합 연합회로서의 주요 기능 및 고유 역할</li> <li>연합회와 정부, 2차 연합조직과의 관계 및 지속 가능 전략</li> <li>혁신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대표 사례 및 협동조합 관련 주요 통계 수집</li> </ul>
6	일본생활협동조합 연합회(JCCU), 일본코프협동조합 연합회	기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145개 구매생협 및 212개 대학생협으로 구성된 연합회</li> <li>'21년 기준 공급사업 및 매장사업 총공급액은 3조 엔으로 추산</li> <li>식품/생활용품 공급 외 의료/복지사업도 활발히 전개</li> <li>대학생협을 통해서 학생식당 외 커리어 지원, 멘탈케어 진행</li> </ul>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문제 개선 캠페인 내용, 효과, 정책 보완점 등을 파악하고 국내 사례, 정책 도입 등 검토</li> <li>공제를 통한 다양한 생활(라이프스타일) 사업과 효과성 사례 등도 분석하여 제4차 기본계획(상호부조)과 연계성 검토</li> </ul>

# 1 도쿄 플라자 시부야

## □ 시설개요

- (방문일자) 2024.11.26.(화) 16:00 ~ 18:00
- (주소) 도쿄도 시부야구 도젠자카 1초메-2-3 시부야후쿠라스나이
- (홈페이지) shibuya.tokyu-plaza.com
- (개요) 도쿄 최고의 변화가 중 하나인 시부야역 인근에 19년 12월 조성된 시니어 대상 쇼핑 복합 공간
  - 고령층이 핵심고객인 고급 복합 상업시설로 9개 층에 걸쳐 총 6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어른이 즐길 수 있는 시부야가 컨셉
  - 주요 고객은 40~60대이며, 이에 맞추어 일본 전통 고급 잡화점·유명 제약회사의 건강 관련 제품 매장·세련된 디자인의 보청기 체험 및 판매장·맞춤 양장점 등의 음식·건강·미용·취미 관련 매장이 운영 중

## □ 주요현황

입점 매장	사업 내용
Sumitomo Mitsui 신탁은행	자산 형성, 퇴직 수당 관리 등 상담(2F, 5F)
Nanboya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제품귀금속 등 구매 및 판매(5F)
Hoken Minaoshi Honpo	보험 상담(5F)
High Premium H.I.S Hills	고가의 프리미엄 여행 코너(5F)
라이프 스토리 살롱	장례식 등 종합 상담창구(현재 퇴점)

- 5층 시부야 라이프 라운지에는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 지원하는 매장 운집해 있음
- 자산 형성·모기지·유언장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은행, 장례식 및 법적 장소를 운영하는 메모리얼이 제공하는 종합 상담 서비스 '라이프 스토리 살롱' 등 인생 플랜 설계를 지원하는 점포, 청력 측정 및 시력 교정 상담, 여행 상담 부스 등 입점

- 입점 매장 중에는 시니어용 카페 라운지가 있어 관련 사교의 장이 되고 있는데, 해당 라운지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인공지능 로봇 페퍼가 고객의 얼굴과 질문을 통해 메뉴를 추천하고 주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객 테이블 앞에서 로봇이 춤을 추며 공연도 가능

□ 현장 사진(도큐 플라자 시설 내부)



참고문헌

- 1) 김웅철, 「초고령화 사회 일본이 사는 법」, 매일경제신문사, 2024, 100p
- 2) 미노시마 타다시, 「새롭게 단장한 '도큐 플라자 시부야'는 고령자를 위한 '임종 세입자'로 가득합니다」, WWD,2019, <https://www.wwdjapan.com/articles/928392>



## □ 시사점

- 시니어층의 구매력 부상에 대비 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장과 상품의 제안, 관련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고려 필요
  - 일본에서는 전체 일본 금융자산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에 쏠려 있는 등 고령층의 경제력 기간 소비가 부상 중
  - 최근 소비트렌드 중 시니어시프트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시니어층의 구매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 동경 변화가에 40대~60대를 타겟으로 그들이 오프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교류할 장소로서의 쇼핑 복합공간 사례 등 참조
- 다양한 세대의 교류 촉진 및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 시부야 지역은 특히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쿄플라자 시부야점은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시니어 이미지 개선, 세대 간 갈등을 해소 및 상호 이해를 돕는 중심지 역할로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강남 지역에 시니어플라자, 웰에이징센터,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 등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 생겨나고 있음
    - \* **(시니어 플라자)**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
    - \* **(웰에이징센터)**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건강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
    - \* **(더 시그넘 하우스)** 고급 실버타운으로, 고령층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및 복지 공간
-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시니어의 욕구와 필요가 해결 가능한 복합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세대 간 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고려될 필요



## □ 기관개요

- (방문지)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福祉クラブ生活協同組合)
- (방문일시) 2024.11.27.(수) 10:00 ~ 12:00
- (담당자) 아리가케이코 이사장, 오오스키쿄코 부이사장
- (주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고히쿠구 니와마치 868
- (홈페이지) <https://www.fukushi-club.net>
- (설립목적)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 상황에서 공적인 복지서비스의 한계는 노후에 대한 불안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를 예측하였고,
  -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협동하여 해결하고자 1989년에 일본 첫 복지 전문 생활협동조합으로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함
  -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의 목표는 자신이 오래 살아온 지역에서, 그 지역 속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자기답게 살기 위한 재택복지지원 시스템\* 만들기를 워커즈콜렉티브\*\*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임
- \* (커뮤니티 옵티멈 복지)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자기답게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복지를 의미하며, 근린사회에서 상부상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동 활동인 워커즈 콜렉티브 조직을 통해 실현
- \*\* (워커즈 콜렉티브) 시민 참여형 복지 실천을 의미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일하는 방식을 택한 지역 시민으로서의 조합원을 뜻함.(지역의 필요를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과 일터로 조직해 냄. 조합원은 소비자이자 노동자로 참여하는 개념) 자체 관리·자체 운영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며, 고용에 의해서가 아닌 모두가 출자하여 경영을 책임지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식 추구함. 조합원들 간에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택배를 통한 공동구매, 건강의료망, 시설망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재가복지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참여형으로 다함께 만드는 지역 최적복지를 달성하고자 함

□ 주요 현황 및 사업내용

- (현황) 1989년 요코하마시 코호쿠구에서 조합원 수 1,020세대로 설립하여 일본 첫 복지전문생협(공동구매와 복지가 일체가 된 생협)으로 시작됨
- 설립 당시, 복지클럽생협 시설은 당초 공동구매시설(배송 센터기능만)으로부터 시작된 이후, 1992년 미니데이서비스를 시작으로
  - 2012년 Kohokuj 시설 개소, 2013년 현재의 회의실이나 워커즈 콜렉티브 사무실 병설, 식사 서비스나 데이 서비스 단독시설, 또 데이서비스나 입거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복지시설 Kita - kamakura 개설 등으로 확장(24년 4월 기준으로 가사 돌봄 서비스는 712명, 데이 서비스는 297명이 이용 중)
-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가나가와현 27개의 지자체 행정구에 1만 6,147세대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음
- 워커즈 3,800명, 별도로 직원은 47명, 복지클럽생협 직원이 워커즈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 워커즈 연령대: 20~80대로 분포하나, 대부분 60~80대여서 노노 케어를 실현하고 있음
  - 워커즈 콜렉티브는 총 17개 업종에 대해 118개가 운영/활동 중이며, 각각 업종별 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워커즈 자체적으로 품질역량강화 활동을 수행, 생협 이사회에서는 자금 지원 등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2023년 기준으로 총사업액은 약 43억엔이며, 공동구매 27억엔(63%), 복지 10억엔(22%), 시설관리 6억엔(14%)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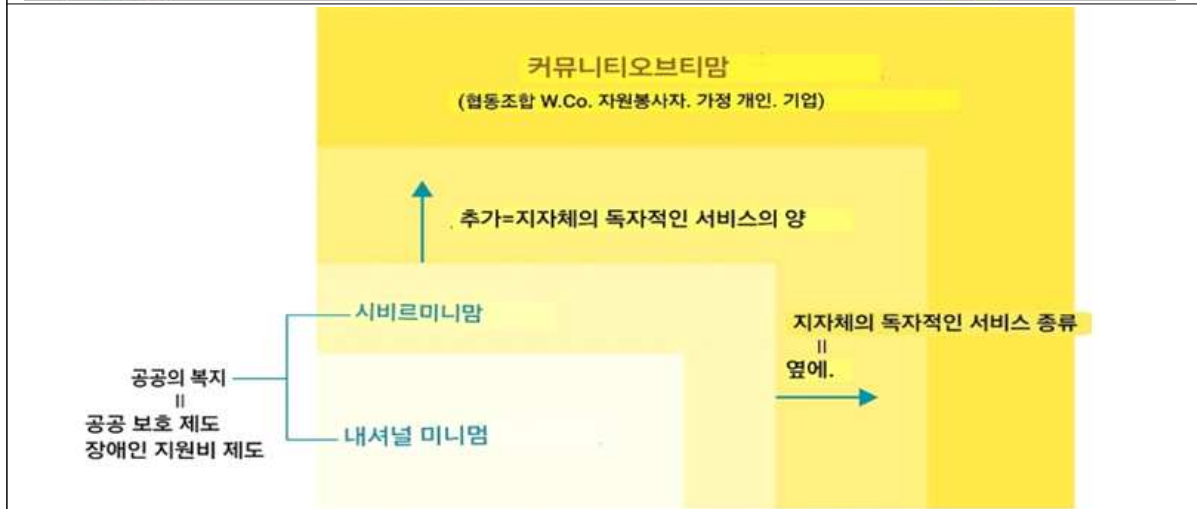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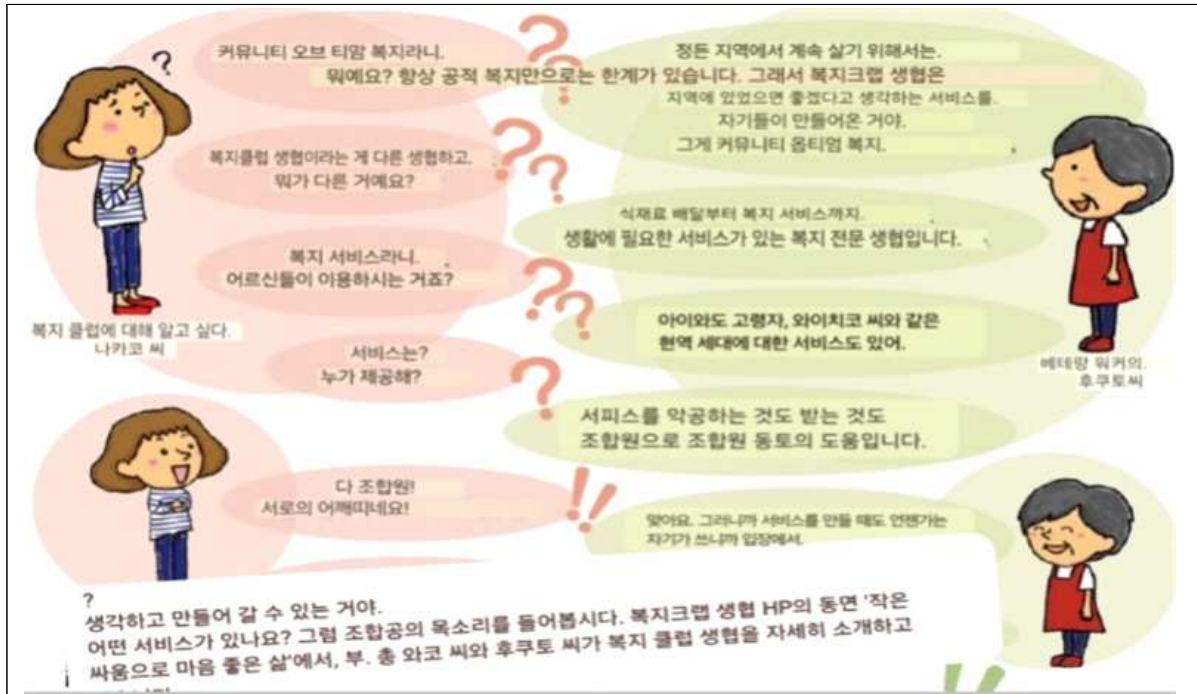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역
출자금	- 18억 305만엔
사업부문	- 43억 8,907만엔 - 공급흑자 : 29억 2,445만엔(소비재 예약공동구매에 의한 배달사업) - 복지사업흑자 : 9억 1,488만엔(가사개호, 배식, 이동, 보육, 개호 생활용품등) - 시설사업흑자 : 1억 8,616만엔(입거 시설, 데이서비스, 웰빙 살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사업흑자 : 4,970만엔(기술 서비스)</li> <li>- 공제수탁사업흑자: 1,386만엔</li> </ul>
행정 수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호보험대응사업: 방문개호, 데이케어서비스, 거택개호지원, 복지용구대여, 장애인지원</li> <li>- 요코하마시, 카와사키시, 카마쿠라시 등의 행정수탁(배식 서비스)</li> </ul>

- (사업소개) 가장 주된 사업은 택배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에게 매주 식품이나 잡화를 배달하는 것이며, 가사 돌봄, 식사 서비스, 데이 서비스(시설 입소 고령자의 식사·목욕·취미활동 지원), 외출 지원, 육아 지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어린이 식당 운영 등 다양한 복지 관련 사업을 운영 중
  - 공동구입과 복지가 일체가 된 생협으로서 주 1회 조합원의 집으로 소비재\*를 배달하며 해당 조합원의 안부를 확인함
  - 소비재를 배송하면서 지역의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재 사용법과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돌봄·육아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 소개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돌봄을 약속하는 배달이 곧 복지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 \* 일본생협에서 소비재는 이익을 얻기 위한 상품이 아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품. 불필요한 첨가물을 넣지 않으며, 원재료와 생산 과정을 밝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복지 서비스의 가격은 조합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 커뮤니티 가격으로 일컬으며, 남은 수익은 워커즈로서의 노동 참여, 이용 참여를 기준으로 모두 동일 기준으로 배분

#### 요코하마 복지클럽생협의 서비스

- (1) 택배 공동구매(매주 약 600품목의 식품(소비재), 생활잡화 배달)
- (2) 건강, 의료 네트워크를 만들며, 개호, 식사, 외출 시중 서비스, 육아지원, 성년후견서포트, 개호생활용품에 관한 상담, 판매, 복지용구대여
- (3) 데이 서비스, 입거 시설 서비스
- (4) 케어 플랜 작성, 개호보험사업
- (5) 기타, 공제, 상례, 기술(에어컨 청소, 문종이 바르기, 맹장지 바르기. 정원수 손질, 이미용, 옷. 리폼, 도장, 이불 다듬이질, 족자 표장, 액자 표장, 병풍 보수, 주택 리폼)



### 커뮤니티 오브티맘 복지의 개념과 지역 복지서비스 간 범위 비교

■ 港北複合福祉施設  
KOHOKU 복합복지시설

- 屋上 옥상
- 個室 독실
- デイルーム 데이 룸
- 共同生活室 공동 생활실
- 子育て、保育室 육아, 보육실
- W.Co 事務室 W.Co 사무실
- 本部事務室 본부사무실
- 会議室 회의실
- 厨房 주방
- うえるびーサロン 웰빙 샵롱
- イメージ図 이미지



### KOHOKU 복합복지시설 구성



□ 현장사진



본부/공동구매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표



노인요양시설(개인실)



데이케어 시설



급식시설



지역의료기관 연계(의료인 방문진료)



## □ 주요 질문 답변 내용

- (질문) 수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서비스의 가격 책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답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지역 주민이기에 경비를 뺀 수익금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다. 공급자는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 책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지불하는 구조이다.

- (질문) 2025년이면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6년에는 관련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지역포괄케어와 생협의 연결고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답변)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에서는 2년 전부터 외부와 연계하여 기업과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 만들거나 어린이 식당 운영하는 등 외부 단체와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 (질문) 현재 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워커즈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 (답변) 중앙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 가치만 공유하고 있다. 업종별 교류, 연수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생협 이사들이 가입된 공유 협의회가 있다.

각 워커즈컬렉티브 유닛이 자체적으로 회계, 매출, 분배를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출자는 복지클럽생협이 했지만 조합원인 지역 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워커즈 3,800명을 포함한 조합원은 총 16,000명이 있고, 별도로 직원은 47명이 있다. 복지클럽생협 직원이 워커즈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급여는 워커즈들이 조금씩 모아서 주고 있다. 그리고 워커즈는 20~80대까지 있으나, 대부분 60~80대여서 노노케어(노령자가 제공자이면서 이용자인 형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원의 급여는 워커즈와 조합원이 제공한다.

- (질문) 매출액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 (답변) 23년 기준 총사업비 43억 215만엔이다. 공동구매가 63%, 복지가 22%, 시설입주 및 데이케어 서비스가 13%이다. 정부 지원금은 없으며, 고객에게 발생하는 매출이 대부분이다.

개호보험도 운영 중이다. 데이케어, 가사서비스 업종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지만 개호보험 수익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비스에서 깎이는 매출액을 보충한다.

지역 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세금 면제 받고, 사기업 지원사업에 공모도 하고 있다.

○ (질문) 지역 내 의료기관과 결합된 서비스가 있는지와 유료 요양 시설 입소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 (답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의료인 워커는 없으나, 지역 내 병원과 협업해서 노인요양홈, 데이케어 시설에 간호사가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개호 서비스가 있는 병원과 계약하는 것으로 요코하마 시내 병원 간호사가 와서 돌봐주고 있다. 데이케어도 병원과 협업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 (질문) 시설규모(수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현재 데이케어 시설은 10명 규모이고, 노인요양홈은 41명이 입주하고 있다. 노인요양홈의 경우, 인기가 많아 항상 대기자 마감됩니다.

○ (질문) 생활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 있나요?

⇒ (답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없고, 기존에 있는 코프 공제 상품을 연계하여 수수료(매출 비중 0.3%)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련 수수료가 수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 (질문) 복지나 돌봄 서비스, 공제 서비스 등의 가입은 고객들이 주로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

⇒ (답변) 관련 정보는 카탈로그, 공동구매 방문 배달 워커 등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이고 실제로 서비스 가입은 주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편이다.



- (질문)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 경영 방식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무엇일까?

⇒ (답변) 성공 비결은 워커즈 콜렉티브 방식으로 소규모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실패 요인은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의 예상보다 3~5년 빨리 와서 의료 부분의 대응이 필요했다.

## □ 시사점

- 국내에서도 생협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 일본의 경우, 수십년 전부터 일반 식품 및 소비재 구매 중심의 소비자 생협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문 생협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 해당 생협들은 기존 공동구매를 중심 사업으로 지역 조합원들의 다양한 돌봄 및 일상지원서비스 수요를 결합하고 있음
- 이 모든 사업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들과 자기답게 늙어가고 생을 마치기 위한 커뮤니티 옵티멈 복지를 근간으로 진행되며
  -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서비스 수요는 일자리 수요와 짝을 이루어 '워커즈 콜렉티브' 형태의 일터를 통해 제공되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은 자생/자발적인 조직 과정을 거치게 됨
  - 이러한 자립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나중에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이웃이나 동료 조합원에 제공하는 돌봄시스템 운영 중
-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서 민간/공공복지 외의 다양한 복지 간극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생협 워커즈 활동 등의 기여가 상당한 상황
  - 우리나라도 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돌봄 시스템 관련 협동조합 등 조직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서로 돕는 지역 기반의 복지 시스템 구축 및 고립된 고령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3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 □ 기관개요

- (방문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WORKERS' COOP)
- (방문일시) 11.27.(수) 13:00 ~ 15:00
- (담당자) 타지마야스토시 전무이사, 통합본부 사업추진본부 호시히라 준코 사무국장(아동돌봄 담당), 통합본부 사업추진본부 사이토 오히로코 (고령화 담당)
- (주소) 도쿄구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1-44-3 이케부쿠로 ISP 타마빌딩 7층
- (홈페이지) <https://workers-coop.com>
- (설립목적) 전후 실업자 문제 대책으로 마련된 전일본자유노동조합이 최초의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쟁 미망인, 실업자가 일용직 노동자이자 조합원이었으며, 자본주의의 수요와 공급의 기준이 아닌 지역 주민이 기뻐할 사업 수행하고자 1970년대 유럽 노동조합을 벤치마킹하였고, 1987년에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정식 출범함
  - 일하고 싶은 누구나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노동자가 주인공이 되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지역에서 창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일하는 사람들과 시민이 모두 출자하고, 경영에 모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을 분담하고, 사람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협동조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주요 현황 및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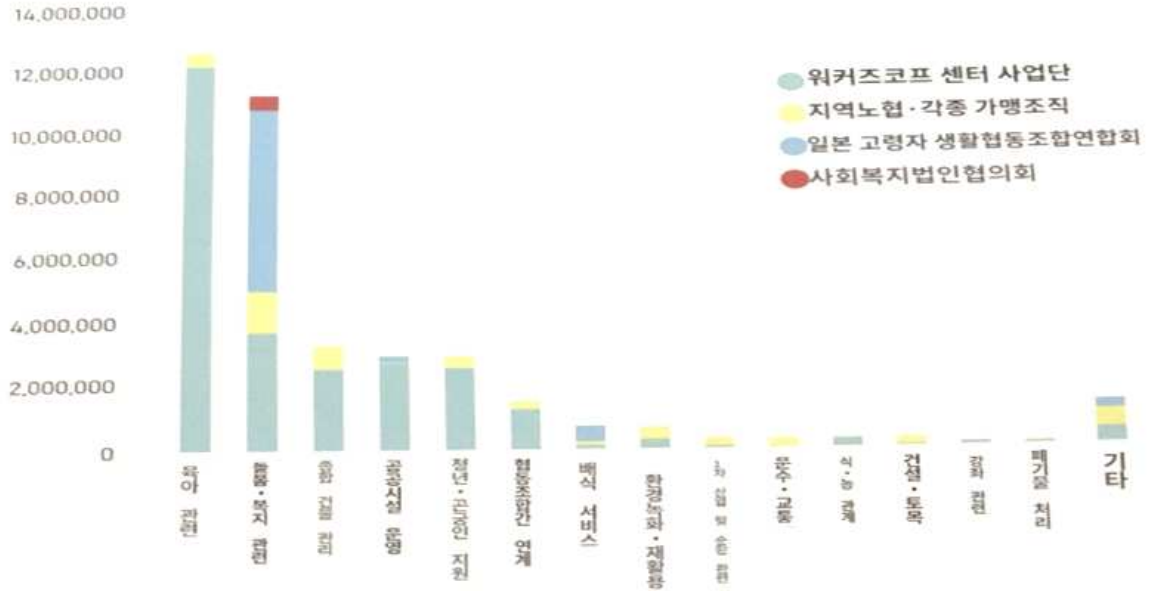
- (현황) 1979년 9월에 결성된 중장년 고용 복지 사업단 전국협의회가 전신이며, 3번의 시도 끝에 2020년 12월 노동자협동조합법이 전원 찬성으로 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노동자협동조합법인에 기반한 연합회로 창립함

- 초기에는 임의단체로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이나 개호보험 등 공적 제도를 이용한 일을 시작하는데 법인격이 필요했고 이에 '기업조합 노협 센터 사업단'과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워커즈 코프'의 법인격 취득하고 활동을 시작함
- '21년 노동자협동조합 법률이 시행되면서 2023.4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코프'를 '노동자 협동조합 워커즈 코프·센터사업단'으로 법인 이전했고 2024.4월 '기업조합 노협센터 사업단'을 '노동자협동조합 노협센터 사업단'으로 법인 이전함
- 공동 노동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단체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으로 대표 기능, 코디 및 플랫폼 기능, 지원기능, 개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노동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노동'이라는 표현 30년간 사용 중이며, 2025년까지 공동노동연합회 만들기 위해 20개 지자체에서 활동 중임
- \* '공동생산'과 '공동노동'은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핵심 개념으로,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중요, 노동자들이 단순히 고용 관계를 넘어, 자신들의 노동과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공동노동이 확장되면 지역 주민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것임. 공동노동의 또 다른 특징은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시하고 있음. 시민이라는 자각과 사회 연대가 공동노동의 기초개념 중 하나라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노협 역시 생협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방향을 설정
- (사업소개)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2004년부터 국가에서 하던 일을 협동조합에서 맡게 되었고, 현재 총 사업비 378억엔, 고용자수 15,087명임
- 주요 사업 중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청년 취약계층지원 등의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복지사업의 비중이 절대적

## [참고] 워커즈 코프 사업규모

사업고는 378억엔, 취업자수는 15,087명/고령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42,471명(천엔)

(2022년도)



- **(아동 돌봄)** 2003년 일본 지정 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공공 분야 사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워커즈 코프가 아동 분야(돌봄, 방과후수업, 보육 센터, 학대 방지) 사업을 위탁 받아 사업 규모가 가장 큼
  - 보호자 입장에서 아동을 돌보고자 시작된 육아 사업의 비중이 최대이며, 전국 208개소에서 방과후아동클럽을 운영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70개소의 방과후돌봄교실을 운영함
  - 중고생의 등교 거부 및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을 마련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보호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모두의 집'을 운영 중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24시간 심야 상담도 운영중
- **(고령화 분야)** 일본의 개호 보험은 약 80개의 상품이 있으며, 워커즈 코프에서 하는 개호보험 사업 중 하나인 데이서비스의 특징은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지역복지사무소\*)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례] 사이타마현 소라마레 데이케어센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민들이 사이타마현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생활 거주를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케어 서비스가 제공된 사례

- 데이케어 서비스는 함께 기른 농작물로 식사를 준비하여 자급률이 90%인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농사로 지역 주민과 교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데이케어 서비스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 기능으로 확대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돌봄 복지, 종합건물 관리, 공공시설 운영, 청년빈곤해결(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젊은이 공간 마련), 방문형 학습지원, 은둔형 외톨이 아동의 거처 마련, 어린이 식당 운영, 빈 상가를 활용한 장애아동 거처 마련, 지역환경 활용 자연체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을 사업 부흥 지역경제활성화, 노년 지원(인생 3모작으로 지역 공헌을 위한 재능기부), 실업자 취업 지원, 우울증으로 노동 불가능한 사람 상담 사업을 수행 중

#### **[참고]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제7원칙**

- (1) 일을 발굴하고 좋은 일을 키웁니다.
- (2) 자립·협동·연대의 문화를 직장과 지역에 펼칩니다.
- (3) 직장 and 지역의 자치능력을 높이며 사회연대경영을 키웁니다.
- (4) 지속가능한 경영을 키웁니다.
- (5)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넉넉한 지역경제를 만들어냅니다.
- (6) 전국연대를 강화하여 '협동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펼칩니다.
- (7) 세계 사람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공생과 협동의 사회'를 추구합니다.

## □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

○ (질문) 노동자협동조합 법률이 개정된 후 변화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일본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이 없었는데, 3번의 시도 끝에 국회의 전원 찬성으로 2020년에 법 제정, 2022년에 시행되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준칙주의에 따라 3명이 모여 신고하면 쉽게 설립 가능하며, 법이 시행된 이후로 110개가 넘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생겼다.

그중 20개는 기존에 활동하던 노동 협동조합이고, 90개는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90개 협동조합에서는 3가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등교 거부나 히키코모리 학생 대상 등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 두 번째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 마지막으로 시니어 계층들이 만들어내는 협동조합 구조로 나뉜다.

실제로 오키나와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어 망한 사카와마치 서점을 운영하면서 지역적으로 유명해져서 마을재생에 기여한 사례도 있고, 일본 전통 주조 사업에 대한 노동자협동조합도 생긴 사례도 있다.

○ (질문) 보통 노동자 협동조합이라 하면 불안정 노동자 등의 권리보장, 복지 및 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비해,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복지, 시민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 (답변) 우리의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공동노동'의 개념이다. 고용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협동·연대하여 일하는 것이며,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향해서, 시민이 협동·연대하여, 사람과 지역에 필요한 일을 만들어내고,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일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즉, 노동자가 주권을 가지고 내 의지로 노동하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 지역 주민들도 자신의 지역 일을 자기들이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의식이 일본에서도 5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JCA에서 지역 공생포럼을 하고 있다.

<일본 노협연합회 7원칙 중 공동노동/생산 관련 내용 추가 발췌>

5.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넉넉한 지역경제를 만들어냅니다

- (1) 지역자원을 살려두며, 생명의 기반이 되는 먹을거리·에너지·돌봄을 자급·순환하는 사회를 주민과 함께 창조합니다.
- (2) 누구라도 안심하고 모일 수 있으며 역할을 갖는 장이나 거처(居場所)를 지역에 만들어내고, 종합복지거점으로 키웁니다.

6. 전국연대를 강화하여 '협동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펼칩니다

- (1)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의 전국연대를 강화하여 운동·사업의 경험을 교류하며 서로 배웁니다.
- (2) 이종 협동조합 사이에서 '마을만들기·일의 발굴'에 관해 제휴하고 협동을 강화합니다.
- (3) 시민조직 및 사업체, 노동단체, 대학·연구소, 전문가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생명·평화와 생활, 사람다운 노동, 기본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며 발전시킵니다.
- (4) 노동과 복지를 중심에 두는 제도·정책을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 (질문) 노동자협동조합에서 강조하는 개념인 '공동노동'의 개념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달라.

⇒ (답변) 일하는 사람의 공동, 지역의 공동, 사용자의 공동이 있는데, 이 중에 핵심은 노동자가 주권을 가지는 공동노동이다. 공동노동이 확장 되면 지역 주민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노동의 특징은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시하며, 시민이라는 자각과 사회 연대가 공동노동의 기초이다.

- (질문) 그러한 견지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예를 들어 데이케어 서비스의 장점을 이야기 한다면?

⇒ (답변)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수요자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농사 등의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사례가 될 수 있다.



## □ 현장 사진



## □ 시사점

-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을 '공동노동'의 개념으로서, 시민이 협동·연대하여, 사람과 지역에 필요한 일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음
  - 그에 따라 공동노동에서는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시하며, 시민이라는 자각과 사회 연대를 공동노동의 기초라고 강조
- 우리나라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 불안정 노동자 등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관련 권익 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음
  - 우리나라 역시 '노동'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는 접근도 고려하여 소비자이자 노동자로 이중 정체성을 지니는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 그 외에도 지역 청년들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기 위한 방향성 고민 필요

## 4

## 도시마구립 히가시이케부쿠로 프레일대책센터

## □ 기관개요

- (방문지) 도시마구립 히가시이케부쿠로 프레일대책센터
  - (방문일시) 11.27.(수) 15:00 ~ 17:00
  - (담당자) 타지마야스토시 전무이사, 아라이마키코 소장, 야마카와카츠히코 액티네츠 사업소장
  - (주소) 도쿄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2-38-10
  - (홈페이지) city.toshima.lg.jp
  - (사업내용) 독거노인 세대가 가장 많은 구이자, 인구 소멸구인 도시마구 위탁 사업으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사업단과 시마조라 사업소가 운영 중으로 직원 5명 중 조합원 4명이 상근 직원이고 1명이 서포터 역할을 수행
    - 사업은 ①취약자 계층 대책 센터, ②서부 고령자 대책 사업, ③아플리에 지역 노동 고령자 대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출자 총액은 400만엔이며, 요양원 입소 전 단계인 약간의 건강 문제를 겪는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임. 영양, 운동 지원. 치매 환자의 취업 지원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 가능하여 하루 100명 이상이 방문하기도 함
    - 사회연대활동으로 센터 옆에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여, 센터 내부 식당의 식재료로 활용함. 센터 1층은 프레일\* 대책 업무에 이용되고, 센터 2층은 중고생들의 청소년 시설로 이용 중
    - 센터 1층 카페는 장애인 청년들을 고용 중이며, 치매 예방 교실 운영 장소로도 활용함(히키꼬모리 상태를 극복한 청년들이 장애인 지원 제도 활용해서 운영). 카페에서 인지 장애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치매 돌봄자 모임도 개최됨
- 이외에도 센터 방문자들은 기모노 원단을 재활용한 만들기, 중국어 강좌, 노래 교실 수업도 수강할 수 있음

\* 프레일 상태란? 건강한 상태와 요개호 상태의 중간 상태로 '허약'을 의미함. 나이가 들면서 심신의 활력이나 체력이 떨어지는 것.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다면적인 개념(의욕 판단능력 저하,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프레일/골다공증 등 신체적 프레일/ 칩거, 곤궁 등 사회적 프레일)으로 조기 발견하여 영양 관리, 운동, 사회 참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한다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이 있음

- (프레일 대책 사업) 운동, 영양, 사회참여로 프레일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임. 70세 이상 주민은 프레일 상태 진단 대상자가 되며, 센터에서 도시마루 체조 학습하여 집에서 체력 유지하고 근력 저하 방지하도록 함
  - 센터에서는 프레일 측정(골밀도, 보행 자세, 뇌 연령, 혈관 나이 측정기 등)이 가능하며, 센터 방문 시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의 상담이 가능함
- (상담사업) 예약제 운영을 통해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프레일 예방과 간호 예방, 생활 습관에 관한 상담
- (치매 대책 사업)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치매 카페, 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 등 개최
- (카페) 고령자 등 지역의 교류 공간으로 커피와 식사 제공
- (어른 식당) 실행위원회를 통해 메뉴 선정부터 요리까지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 □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

○ (질문) 프레일 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 (답변) 1. 취약계층 지원 대책 2. 고령자 생활지원(생활편의, 사회참여) 3. 고령자 대책, 그 외에 센터에서는 지역주민, 은둔 청년 등을 위한 행사나 모임도 개최된다.

○ (질문) 센터의 일일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나?

⇒ (답변) 고령자의 자체적인 그룹 활동은 50명 정도 방문하고, 센터 행사를 하게 되면 100명도 이용한다. 프레일 상태 예방을 위한 도시마루 체조의 경우 센터 활동실에서 1일 2회 진행되며, 1회에 25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 (질문) 한국은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단계이며, 2026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에 들어선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에서 경험에 비추어 한국에서 고려할점, 배울점은 무엇일까?

⇒ (답변) 해당 센터가 중앙케어센터인데, 지역 주민과 담당자들이 1달에 1번 함께 월례 회의를 통해 교류 중이다. 센터 방문자 중에서 건강 악화나 인지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고, 반대로 다른 기관에서 건강이 호전된 이가 사회참여를 희망하면 프레일 대책 센터로 안내한다.

지역 행정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도시마구는 지역포괄 등에 친화적이라 잘 운영되고 있다.

□ 현장 사진



센터 전경



센터의 지향(영양관리, 소통/교류 강조)



센터 내부 구조



센터 옆에 마련된 작은 텃밭



센터 옆 카페



활동실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마루 체조</b></p>	<p style="text-align: center;"><b>개호예방 수첩</b></p>
	
<p style="text-align: center;"><b>데이케어 수업 작품</b></p>	<p style="text-align: center;"><b>센터 영양식</b></p>

## □ 시사점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다수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기초지역 단위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 등으로 긴밀히 참여 중
  - 다만,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복지시스템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있고, 지역마다 서비스 제공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었음
  - \* 프레일대책센터가 있는 도시마구는 복지에 친화적인 편
  - 이에 향후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크지 않도록 행정과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 또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소득과 중증 여부를 기준으로 취약과 중증 환자 중심의 복지체계

에 대한 점검과 방향 전환 고민 필요

- 일본에서의 '프레일' 방지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 기반 예방 중심의 복지시스템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적 측면에서도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의료복지사협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관련 확산 지원 방안 등 모색 필요
- 또한 앵커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 지역 주민의 교류,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 필요



## □ 기관개요

- (방문지)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apan Co-operative Alliance)
- (방문일시) 11.28.(목) 10:00 ~ 12:00
- (담당자) 히가마사히로 대표이사, 박사 코바야시하지메 상무이사, 국제 연구팀 이와타야스히코 주석연구원
- (주소) 도쿄 신주쿠구 후나가와라초 11 이다바시 레인보우 빌딩 5층
- (홈페이지) <https://www.japan.coop/>
- (설립목적) 일본에서 협동조합은 19세기 전반 사회적 약자들의 상호 부조를 위해 회원들이 자신의 토지를 투자하고, 원금 반환, 대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농산물 판매, 비료 구매를 위한 협동조합 탄생하였고, 20세기 전반 소비자가 만든 도시 지역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함
  -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발전했고, 1951년 일본협동조합 연맹이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JCCU)로 전환됨
  -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는 2018년 4월에 설립됨. 농업, 어업, 산림업, 제조업, 의료복지, 금융보험, 노동 등 일본의 다양한 협동조합 19개가 회원으로 있는 일본 협동조합 부문의 최고기관임. 협동조합 간 협업 강화로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주요 현황 및 사업 내용

- (현황) 8개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 18명을 포함하여 직원 수 33명임. 현재 일본은 단일 협력법이 없으며, 개별 법률로 다른 정부 부처에 보고되었음. JCA 이전에 부문 네트워크로 일본협동조합종합연구소, 일본협동조합공동위원회(JJC)가 있었으나, 이는 법적 지위가

없는 단순 연맹이었음. 이에 법인조직으로서 17개 협동조합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

- 학습과 연결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중이며, 일본 협동조합 간 협력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정책 개선 등 대중들에게 더 나은 정보와 교육 제공하고자 함
-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노동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조직임
- (회원조직) 농협, 소비자 생협, 노동자 협동조합 등 각 분야의 19개 연합회가 제1호 회원이며, 현재 2호, 3호 회원을 거쳐 650개가 넘는 조직이 참여 중임. JA(농협)가 가장 큰 부분(551개)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소개)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에서는 사례들을 정보화해서 알리는 역할 수행 중. 조직을 확대하기보다는 민간-협동조합 연계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공생포럼 등을 통한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회원들과의 공유, 지역사회 이슈 및 협동조합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기회 창출하고자 함
  - 일본 내에 개별 협동조합의 연합은 많지만, 지역 기반으로 여러 협동조합이 연합한 조직은 거의 없음. 일본 42개 현에 있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지원하는 것이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의 역할임
- (재원) 회원사 출자금(66.6%), 세미나 수익금·연구위탁 등(33.3%)
- (중장기 계획) JCA 2030 ①협동을 넓혀가자, ②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자, ③타협점이 일치하는 그 지점을 찾자

## □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

- (질문) 협동조합 간 연계를 목표로 하는데, 연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 (답변) 협동조합 간 연계가 잘되는 분야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고령화 분야는 정말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가노현의 지역은 생협 병원, 공제 등이 매우 잘 운영되는데, 인근 지역인 나고야에서는 생협 공제가 매우 어렵다. 인접 지역이라 연계 희망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공제, 의료 등이 연계가 안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즉, 개별 협동조합의 연합은 정말 많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협동조합이 연합을 하는 사례가 정말 드물다. 실질적인 연계가 어려운 이유가 보험은 금융청 소속이고, 각 협동조합은 개별법으로 소속되어 있기에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교류가 어렵다.

다만, 지역포괄케어 개념으로 후생노동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생협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는 있다. 현재는 6년간 매년 지역공생포럼 개최하고 있다.

- (질문) 설립 시기가 코로나 시기와 중복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변화 있었는지?

⇒ (답변) JCA보다는 개별 회원사들의 타격이 컸다. 조합원과의 접촉을 통해 많은 일이 이루어지므로 접촉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달 업종 협동조합은 괜찮았다.

- (질문) 일본의 협동조합 간 연계 사례 소개한다면?

⇒ (답변) 협동조합 간 지역 연계 사례가 드물지만 1가지 소개하자면, 아마 카타현 미도리 지역에서 농협과 생협이 연합한 사례가 있다.

생협이 농협에 찾아가서 직접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 배우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생협에서 지역 특화 쌀 종자 개발 등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외에 단기 이주 프로그램 시설도 만들기도 하면서 우수한 선례로 보고 있다.

○ (질문)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과 각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등과의 결합/활용 상황은 어떠한가? 관련하여 JCA의 역할은?

⇒ (답변) 연합기구 차원의 특별한 결합이나 연계가 아직까지 있지는 않으며, 지역별로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활용하는 경우는 있다.

○ (질문) 일본의 경우, 농촌 지역 등에서 농협과 의료협동조합 간의 협력 현황은 어떠한가?

⇒ (답변) 일본 농협의 경우, 직접 의료기관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의료생협 등과의 협력 사례가 많지 않다. 일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의료보건서비스 관련해서 농협이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협동조합과 연계는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서로 간의 필요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 (질문) JCA 사업 중 통계조사가 있을 것으로 하는데, 통계/정보조사 주거나 활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일본 협동조합에 관한 전국민 의식 조사를 3년마다 수행한다. 2022년도에 의식조사를 1회 시행했고, 3년 후인 2025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 2만명 대상으로 지역별로 비교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의식 차이도 비교한다. 일본은 국민의 46% 정도가 조합원인데, 비조합원도 제품은 소비하므로 비교가 가능하다.

○ (질문) 협동조합의 디지털 분야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은 협동조합의 디지털화 상황은 어떠한가?

⇒ (답변) 일본 협동조합은 인터넷상에서도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협동조합이 탄생하기도 한다. 자녀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부모들이 제품 개발한 사례도 있었고, 70대들이 코로나 계기로 스마트폰 사용 시작하여 농협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개설하기도 했다. 젊은 농부들은 라인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협업하기도 한다.

○ (질문) 연합회 업무 특성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 (답변) 규제가 많고,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있어서 협동조합 간의 교류가 어렵다. 예를 들면 보험업은 금융법 소속, 농협은 농림청 소속, 협동조합은 후생노동청 소속되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 (질문) 협동조합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출자금이 부채로 처리되어 융자에 불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이기에 투자에도 불리하다.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 (답변) 일본도 한국과 동일하게 자금조달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출자금이 재원의 전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출장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출자금을 받지 않고 점점 사업을 넓혀가는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 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일본 협동조합의 경우는?

⇒ (답변) 일본의 협동조합의 경우 그런 구분이 따로 있지는 않다. 각 협동조합은 관련 법 소관부처에 따라 운영되고 설립된다.

## \* 일본 농협의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일본의 농업협동조합(JA)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 농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 1. 농협의 의료기관 운영

- 일본의 농협은 농촌 지역에서 의료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그 시작은 1919년 시마네현 산업조합이 농촌진료소를 개설한 것으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됨
-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병원은 107개에 이르며, 그 중 40%가 인구 5만 명 미만의 농촌 지역에 위치, 이러한 병원들은 조합원의 출자로 설립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

### 2.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 일본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음. 농협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약제지도관리 등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

### 3.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

- 농협은 취약한 농촌지역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

### 4. 지역사회와의 연계

- 일본의 농협은 농촌 지역에서 농업 지원을 넘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재택의료 지원,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

일본의 농협(농업협동조합, JA)과 지역포괄케어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연계된 구조를 형성하 일본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조직이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지역사회 복지와 돌봄 서비스로 역할을 확장 중



## □ 현장 사진



## □ 시사점

- JICA는 농협/신협/생협과 노동조합동조합 등 개별법을 망라하는 연합조직으로 각 단위들의 자원 조달과 파견을 통해 운영 중
  - 협동조합 간의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현재 국내 협동조합들은 고령화, 지역 소멸, 에너지 전환 등 공동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
  - 이에 '2번째 협동조합의 해'를 계기로, 개별법 기본법을 아우르는 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 고려 필요
  - 또한 정책 당국에서는 협동조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 및 기회 조성,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 등 필요

## □ 기관개요

- (기관명)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JCCU),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 (방문일시) 11.28.(목) 15:00 ~ 17:00
- (담당자) 홍보부 요시노리 아사다 부장, 섭외부 신이치 마이타 부장, 섭외부 후미아키 고이케
- 주소
  -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도쿄 시부야구 시부야 3-29-8-플라자
  -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151-0051 도쿄 시부야구 센다가야 4-1번지 13호
- 홈페이지
  -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https://jccu.coop/eng/>
  -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https://coopkyosai.coop>
- 설립목적
  -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안심하고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다양한 조직과 소통하고 정책 제안, 생협과 협동하여 CO·OP 브랜드 제품 개발·공급함으로써 회원 협동조합의 사업 및 활동 개발 지원함.
  - 회원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JCCU는 다양한 조직과 소통하고,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을 촉진하며, 정책 제안. JCCU는 또한 회원협동조합에 CO·OP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며, 회원 협동조합의 사업 및 활동 개발을 지원
  -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의 생활에 미치는 다양

한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로 도와줌으로써 협동조합의 발전, 협동조합 운동의 확산, 번영하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

- 더 나은 콘텐츠와 더 낮은 보험료로 회원의 생활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
- 공제금을 받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공제의 필요성을 이해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인 공제와 협동의 정신을 육성-
- 공제 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조합원 수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를 높일 것
- 가입자가 공제 및 보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생활에 유용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강, 복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복지 활동과 재난 대응을 통해 사회에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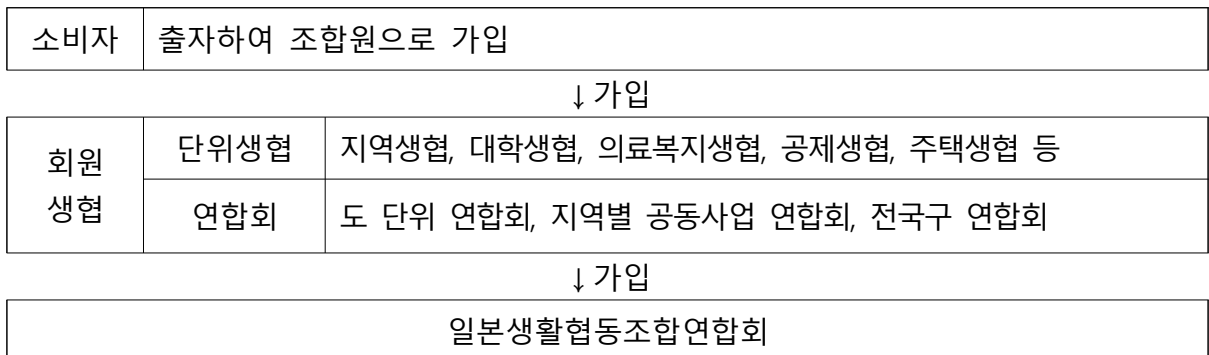
□ 주요현황 및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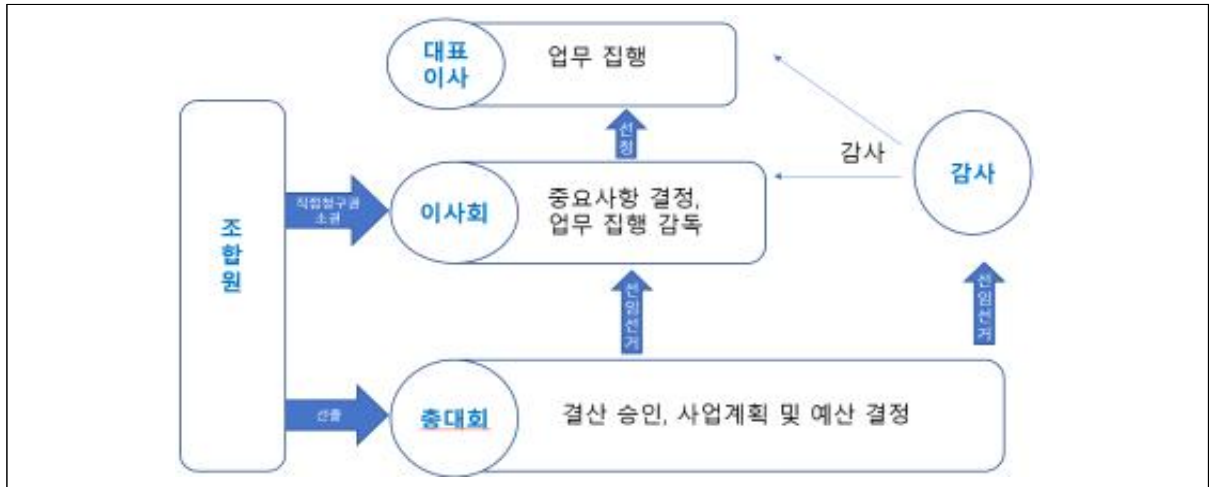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 현황

-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지역구매생협 회원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생활협동조합연합회로 1951년 창립하였고, 현재 3천만명이 조합원과 302개의 생협이 가입된 전국연합, 21년도에 생협연합회와 대학생협연합회를 통합
- 2023년 기준 회원 생협의 총 사업액은 3.7조엔, 일본 가구의 39%, 2,300만명이 조합원이며, 대학생 임직원 조합원 150만명 이상

\* 생협의 기관 운영





**\* 일본생협 개괄**

소비자가 스스로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 소비자생활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협동조합 중 하나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의해 보다 좋은 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생협은 전국적으로 약 3천만명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의 소비자 조직으로 전국에 600여개의 생협이 있고 지역 생협의 세대 가입률은 39% 수준. 일본 가구의 3분의 1 이상은 생협에 가입되어 있음

생협은 행정과의 지원 협정에 근거하여 재해 시 인력파견, 물품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2024년 노토 반도 지진 시에는 613명을 파견했고, 14억엔 이상의 모금액을 전달하는 등 코프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배식이나 자원봉사 지원도 수행 중

주로 주부들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육아 지원 서비스도 시행 중으로 예를 들면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 배달원이 조합원의 가정에 기저귀 택배를 배송하며 대화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등의 역할과 서비스 수행

**○ 사업소개**

- 회원조합인 지역구매생협들은 매장사업 및 택배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진행, 대학에서도 학식사업, 점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인 회원조합들의 사업지원을 위해,
- (공동상품 개발, 공동구매,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회원조합들을 위해 CO·OP 브랜드 공동상품을

개발하고 개선하며. 전국 회원조합으로의 제품 유통(CO·OP 브랜드 제품의 유통을 주문 관리부터 물류, 배송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국내 브랜드 제품과 수입품을 포함한 제품의 공동구매, 택배 카탈로그 제작, 회원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제품 홍보 기획 등을 진행, 우편 주문 및 온라인 소매 사업, 회원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의류, 가정용품, 침구, 인테리어 가구, 가구와 같은 제품을 회원들의 집으로 직접 배달, 계절별 선물(지정된 수신자에게 직접 배달), 회원 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발 운영

- **(택배사업)** 생협 택배는 가정 현관까지 배달하는 개인 택배와 이웃 그룹에 배달하는 반배가 있음. 2023년도 택배 사업의 매출액은 2조 926억엔
- **(점포사업/이동점포)** 대형점, 소형점, 이동점포 등 지역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 2023년 기준 점포사업의 매출액은 9,429억엔이며, 전체 점포 수는 900개. 택배 사업과 유사하게 이동점포 사업도 소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나 고령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복지사업)** 이용자의 존엄을 지키고, 사람다운 재택 생활 지속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재택 개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연수도 실시함
- **(주거지원)** 소규모 다기능형 주거돌봄 시설도 운영 중인데, 입소자는 심신 상태에 따라 통학과 숙박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의 자택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음
- **(푸드뱅크 운영)** 포장이 파손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조합원의 가정에서 남는 음식을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함. 이외에도 유니세프 모금이나 상품 판매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운영함. 빵공장과 육류가공업 등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중
- **(기타)** 학습회, 활동 교류회 개최, 정보지 발행. 2023년 기준으로 4,880억엔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고, 보다 좋은 사회를 위해 지역·환경·사회·사람을 배려한 제품을 공급, 재해 시 각종 캠페인 등



- 또한, 규격 외 상품이나 제조 과정에서 나온 원료를 재활용하여 환경과 사회를 배려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 ○ 현황 및 사업내용

- (탄생 배경) CO·OP 공제가 탄생한 1970 ~80년대는 생명보험 상품이 주로 세대주인 남성을 위한 상품이 많았음. 보험료가 비싸고 내용도 어려웠으므로 생협은 조합원인 가정주부, 혹은 어린이를 위한 공제 상품을 만들었고, 생협 상품 배달원이 공제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상품 가입과 더 좋은 상품으로 변경이 수월했음
- (연혁) 1979년 일본생협연합회의 한 사업으로서 공제 사업 개시하였고, 1984년에는 후생노동성의 인가 받음. 2007년 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생협연합회에서 분리되어 코프공제생협연합회 설립. 현재 공제 사업만을 전문으로 운영 중, 21년도에는 생협연합회와 대학생협연합회가 통합시 공제사업도 통합되어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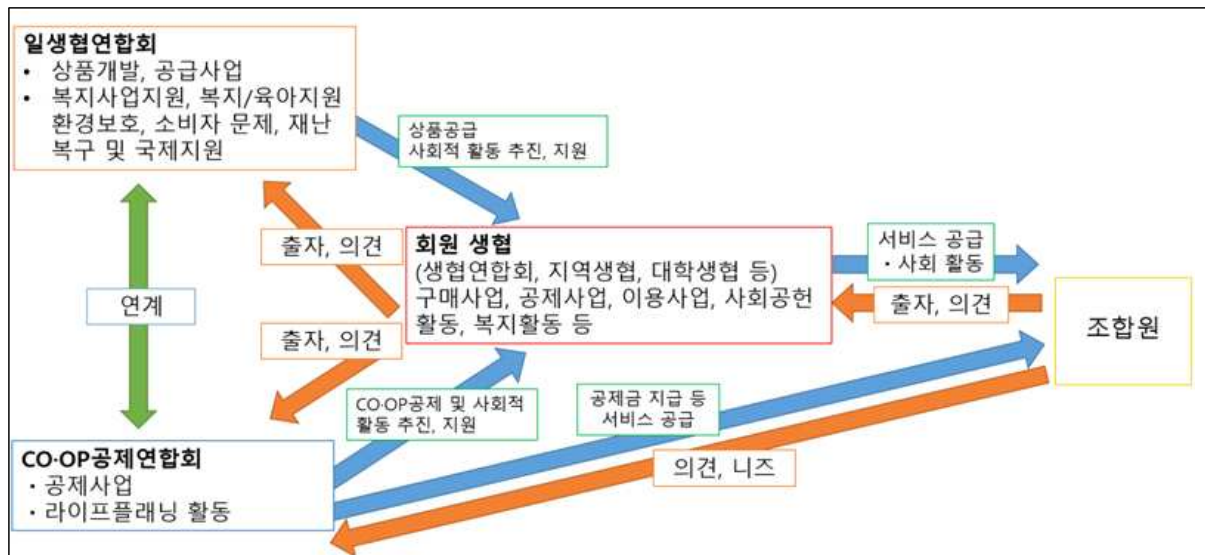


### <CO-OP공제의 성장과 발전과정>

- (1984~1990년대)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생협 직원 전용의 보장을 토대로 조합원 전용 공제 상품 개시. 공제단체(JA공제, 국민공제 등)의 마지막 주자로서 초기 어려움이 컸음. 택배 사업을 중심으로 1개월 정도 조합원 모집 캠페인을 통해 전국의 회원 생협으로 확대하며, 생협 조합원의 중심인 어머니, 자녀의 보장을 대상으로 영업. 또한, 1994년 조합원이 스스로 보장을 배우는 '라이프 플래닝' 활동 개시. 전국의 주요 지역생협(30여개)과 CO-OP공제를 공동으로 인수
- (2000년대) 가입자 확대와 상품 개정 및 조합원·회원생협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품 개발(10년 및 종신 보험 실시, 공제금 청구 서류 간소화 등)

- (가입 규모) 일본 4대 공제의 하나로, 2024년 3월 기준 가입자 수 1,027만명, 수입공제부금 2,238억엔, 지급공제금 849억엔
- (취급조합 현황) 지역생협 145개, 대학생협 209개 등 총 357개의 회원조합이 CO·OP공제를 취급하고 있음
- (성공요인) 생협 직원이 창구가 되어 구매사업과 연동한 공제 보급함. 배달자와 지역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이 가능했음, 또한 Bottom-up 방식으로 의견과 욕구를 집약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합원의 목소리와 생활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품개발 및 서비스를 개선해 온 것도 주요

#### \* 일본생협연합회와 CO-OP 공제 간 운영 구조



출처: Social Finance Forum 2023, 일본코프공제연합회 이사장, CO-OP공제 발표자료

- (주요 상품) 어린이 보장 등 주력 상품 서로돕기 디스케어(1년), 암 보장 등 아이푸라루(10년), 의료보장 등 종신보험, 학생 종합 공제(1년) 등
- 이용자와 출자자(조합원이 출자하는 생협)가 일치하기 때문에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사업 가능
- 매년 결산을 통해 지불 공제금과 사업경비를 뺀 납입금 중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금으로 가입자에게 환원
- 주력 상품인 《서로돕기》는 연령 및 건강위험 정도에 상관없이 코스마다 일률적으로 환급금 환원(단, 정기 생명공제 상품의 가입 코스는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상이)
- \* <서로돕기> 어린이 J1900엔 코스 개발 과정: 지병이 있는 아이들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조합원의 바람을 생협 직원이 전달하여 가입요건을 대폭 낮춘 'J1900엔 코스'가 개발됨, 간단한 요건(1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권고 여부만 확인)만 통과하면 완화된 고지만으로, 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장

**\* 협동조합 공제와 일반 보험시장과의 차별점**

- (상호부조 정신과 공동체 강화) 조합원들이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여, 이윤보다는 공동체의 안정과 복지를 우선시
- (낮은 비용과 경제적 접근성) 2017년 일본 협동조합의 공제금 수입은 약 6조 8,826억엔으로, 이는 일본 전체 보험료 수입의 약 14.2%를 차지함. 또한, 일반 보험사 지급률(약 45%)과 비교하여 CO-OP공제의 대표 상품 '현민공제'의 지급률은 97%에 달함
- (조합원 중심 운영)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상품을 설계. 예시로 CO-OP공제 1984년 1년 단기 상품에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2000년 10년 보장상품, 2011년 종신보험 상품이 등장함
- (사회적 약자 지원) 일반 보험은 가입 기준이 엄격하여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위험이 크거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품을 제공하지 않음. 협동조합 공제는 취약계층 등 포괄하여 사회적 안정만으로 작용하고, 특화된 상품((예시)농업, 어업 등 재난에 취약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공제 상품) 제공을 통해 시장의 공백을 보완함
-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동조합 공제는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공제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프로젝트나 복지 사업에 재투자함.

## □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

○ (질문) 일본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공제 상황은 어떠한가?

⇒ (답변) 일본의 경우, 의료생협이 가진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고, 이미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예방에 의미가 별로 없어서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보험은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에 의료 분야에서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 (질문) 한국은 상호공제, 금융 규제가 많다. 공제는 협동조합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필요성이 적다고 느끼는 이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답변) 일본도 규제가 많다. 현재 법적으로 구매 등은 할 수 없다. 공제는 공제만의 수입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 (질문) 마케팅 비용, 운영 비용을 줄이고 공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답변) 수익을 저축하는 비율이 높다. 자금 저축을 통해 안정성을 가졌다는 것을 강점으로 공제 상품을 판매한다.

타 공제는 90% 환급이라는 '높은 환급률'을 중심으로 영업하는데, 우리는 60%를 환급하고 30%는 저축하고 있다. 즉, 수익 일부를 저축해 두면서 '안정성'을 강조하며 운영한다. 그렇기에 1년 단기 상품만 보유하고 있는 타 공제와 달리 전생애주기의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취급한다.

특히, 우리의 방침은 항상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보장을 오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원했기에 '저축 방식'을 활용했다.

조합원의 의견은 1년에 48만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데이터 분석하여 관리하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

또한, 전체 매출의 30%가 경비지출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경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 (질문) 그동안 일본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공제를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언을 한다면?

⇒ **(답변)** 한국에서 공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면 공제 기관의 규모를 키워야 할 것이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가입자 규모가 커지면 조합원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 이점을 관리하는 것이 사업에 중요하다.

코프공제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258,764건의 조합원 개선 의견 수렴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천식질환자 가입조건 개선, 태아가입 상품 마련,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공개했다.

○ **(질문)** 지역포괄케어에 생활협동조합이 얼마나 연계가 되고 있는지?

⇒ **(답변)** 개호사업을 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들이 연관되어 사업을 운영 중인데, 규모는 102억엔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의료복지 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중 개호사업이 있고, 지역포괄케어 센터와 연관되어 같이 운영 중이다.

○ **(질문)** JCCU에 가입된 생활협동조합 중 개호의 비중은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 **(답변)** 3조 7억 중 약 10% 정도 차지한다.

○ **(질문)** 공통 상품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다. 생협에서 개발한 공동 상품의 입점, 매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상품 개발 주체는 연합회이고, 각 생활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합회가 주도하여 상품 개발은 없었고, 각자 생협에서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입점 규모는 4천억, 매출은 3조(10%)이다.

○ **(질문)** 휴지와 같이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상품을 공동생산·판매하는 경우도 있는가? 다양한 판매 상품 중 가장 인기 상품은 무엇인가?

⇒ **(답변)** 휴지, 어린이 당근 주스, 식빵, 우유 등이 많이 판매된다. 도쿄에 매장 50여 개 있고 교외에서는 이동식 매장도 운영한다.

이동식 매장은 쇼핑이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수익 창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 현장 사진



생협 상품 전시 및 역사 소개 공간



## □ 시사점

- 민간 및 공적보험 빈틈 해소를 위한 협동조합 공제 점진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일본은 생협 기반의 CO·OP공제를 비롯하여, 농협 중심의 JA공제,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고쿠민 공제 등 객 개별법 단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여러 주체를 통한 공제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체 보험 관련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적은 납입금, 큰 보장'을 모토로 조합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제상품을 출시, 운영 중
  - 조합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에, 일반 보험의 빈틈을 보완하여 고령화, 질병,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예 서로돕기 J1900엔 코스). 특히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전망 역할 가능 기대
-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협동조합 기본법의 경우,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생협 역시 공제사업 추진에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
  - 연수를 통해서 일본 공제사업의 현황과 효과, 협동조합과의 결합 필요성 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제도 정비, 조합 간 연대 구축 등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 의료, 노후 보장 등의 서비스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공제사업을 통한 안전망 구축은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 다만, CO·OP공제련의 연 단위 단순 보장 공제상품을 중심으로 시작한 후, 금융 운영 역량과 전문성, 안정성이 축적된 상황에서 조합원 니즈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던 사례, 개별 생협 조합들과 전문공제운영, 영업 및 홍보로 분담된 운영구조 등을 참고하여 도입 관련 시행착오와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 결과 및 시사점

-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찾기 위해 '1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래 지역 기반의 지역포괄케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을 방문하여 기본법 및 개별법 협동조합 등의 적용 사례를 조사함
-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공공 분야에서 모두 대응하기 어렵지만, 보건의료·육아·지역재생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면서 조합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보호하고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
  - 이는 해당 조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임. 예를 들면, 핵가족화와 고령자 가구의 증가로 가족 내에서 해결이 어려워진 가사 분담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복지클럽 생협, 노동자협동조합 등 현장 연수를 통해서 바라본 일본의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교류, 주민의 관계 형성 등 공동체의 역할이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함
- 일본은 지역기반 종합 복지 시스템으로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협, 노동자협동조합 등도 공급 주체로 참여 중
  - 다만,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복지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민간과 결합하는 방식이며, 조정은 관계협의체가 맡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 등 지방정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마다 서비스 제공의 편차가 크다는 이슈 존재,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감안할 필요
  -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의 경우,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쇠약 이전 단계부터 마을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정



책을 추진 중, 국내 역시 소득, 증상발현 후 증산 수준 판정에 따르고 있는 사후 지원 방식의 돌봄 체계 점검이 필요한 시점

- 일본의 개호(간병, 수발)보험, 공제제도는 민간보험 가입 외에 고령자의 질병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는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임
  - 유료 요양원 등 고령자 입소시설도 협동조합의 상품으로 조합원이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음
  - 이외에도 방문개호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되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지더라도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일상생활을 영위 가능
- 이외에도 생협외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라도 평등하게 상품을 전달하는 것을 추구하여 도시와 달리 부족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산간벽지의 생활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도 주목할 만함
  - \*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JCCU) 서로 다른 생협의 제품을 각 생협 직원이 2인 1조로 트럭을 타고 배송, 판매하고 있음. 지역의 생활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섬 지역 등 쇼핑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냉동식품, 쌀 등을 배송 받아 생활이 풍부해짐
- 시장 경쟁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고립, 사회격차 확대, 저출생 고령화 등의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돕고 지지하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진흥원에서 일본과 같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국가의 우수사례 및 문제해결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산재되어 있는 국내 협동조합 우수사례와 신규 사업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여 전국 규모로 정보를 배포하고,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의 경우와 같이 협동조합 간 연계 강화 방안 고안 마련 필요

## □ 향후 업무활용 계획

- 본 연수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선진사례 및 지원 정책 등의 검토를 통해
  - 국내 현장 적용 효과성을 제고하고 향후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선제적인 전략 수립 시 활용
  - 일본 협동조합 사례 및 정책과 우리나라 사례 및 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협동조합 관련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신규 지원방안 도출 검토
- 일본 현지의 우수 협동조합(연합회) 사례의 장점 등을 국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협동조합(연합회)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V**

**첨부자료**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11.27.(수))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11.27.(수))



프레일대책센터(11.27.(수))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11.28.(목))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JCCU),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11.28.(목))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방문기관 자료집 및 접촉인물 명함



자료집



명함